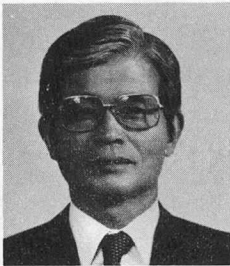


● ’88년을 보내며

# 사료업계를 돌아본다



전 남 수

((주)우성사료 대표이사)

88년은 뭐니 뭐니 해도 민주화·자유화 물결을 타고, 우리 축산업계에 세찬 바람은 쇠고기 수입이었다. 쇠고기가 수입되면 소값이 떨어진다고 다 내다 팔았는데, 소값은 더 오르고 그것을 기화로나 한 것처럼 쇠고기는 비행기로 수입되었다. 금년 9월 통계로 보면 1백 73만두라고 하니 제일 많은 때에 비하면 65% 수준이고 지난해와 비교해도 80% 수준이다. 이 적은 숫자도 대형 비육우 농장에서 비육되고 있는 소가 많으므로 송아지 생산량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보아 마땅

할 것이고, 국내 소값이 계속 오르게 되면 송송아지보다 암송아지가 비싸지는 정상 궤도에 진입하게 될 듯도 하다. 수입 쇠고기보다는 국내 쇠고기가 맛있다고 해야 한국 소가 살아남고 또 그렇게 되어야 사료회사도 한국 육우의 번식·비육의 진짜 프로그램도 만들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양돈사료는 87년에 전년대비 35.6% 신장했고, 88년은 20% 신장이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경기의 상승과 수출증가로 그런대로 돈가(豚價)를 유지해 왔으나, 수입국 일본의 돈가(豚價)가 하락했다면 수출도 힘들어지는데다 수입가공품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홍역을 치러가는 내년 한 해가 될것만 같다. 쇠고기 가격이 오르고 있으므로 돈육소비가 늘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고급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일부 계층은 비싼것을 적게 먹는 방향으로 전환된다고 보는 면도 있다.

산란계는 1년의 고전끝에 금년 하반기부터 15% 정도 줄고 있으며, 가공용 난백이 1,500톤 수입되었다고 하며, 얼마 있지 않아 액란의 수입 압력이 가해질지도 모른다.

이렇듯 축산물이 수입되고 있는데 아직도 사료원료는 제한되어 있거나 쿼타(Quota)에 묶여 있고, 육우나 돈육을 수출하는 양축가에게 정부 보조는 못할망정 사료원료에 수입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 금명간 배정될 국산옥수수 연간 사료값에 1.5%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사료 수요는 줄고 양축가는 수

지가 맞지 않고 있으니 짠 사료를 찾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생산성은 더 떨어지고 원가 경쟁이 되지 않으니 수지가 안 맞는다고 집어 치우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88년은 당초 사료소요량은 5% 증가한 950만톤으로 책정하였고, 총량면에서는 별 차이없이 결과되리라고 보고 있다.

86년은 전년대비 19% 증가요, 87년은 17%의 성장에서 보면 많이 둔화된 수준으로 일부에서는 1,000만톤 수준에서 조정국면에 들어간다고 하는 예측에 부합하기라도 한듯 급격한 둔화세를 나타내 주고 있으며, 새해에 양돈경기마저 불투명하므로 성장은 정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설상가상으로 금년 초부터 오르기 시작한 사료원료는 30여년 내의 가뭄으로 하반기부터 더 오름세를 나타내어 원화의 급속한 절상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의 8% 인상에 이어 내년 초까지 금년 11월 대비 15% 정도의 인상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사료업계는 고품질의 사료를 값싸게 만들고 아주 유효하게 사용하도록 하는데 그 소임이 있을 것인데도 관세 인하, 부가세 철폐, 국산원료의 타용도로의 전환, 대체원료의 개발, 사양연구 등을 얼마나 충실히 소임을 다해 왔느냐고 묻는다면 부끄럽게도 대답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사료의 수요는 늘지않고 양 위주의 시대에서 질 위주의 시대로, 고도 성장에서 저 성장시대로 변천되어 가고 있다.

치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노력은 누가 얼마나 많이 파느냐가 아니고, 누가 더 유효하게 자원을 이용하면서 싸고 고품질사료를 만드느냐에 달려있다. 마치 누가 몇만두 사육농가라는 것 보다는, 규모는 적지만 생산성에서, 원가에서 한국 뿐만이 아니고 세계에서 베스트라고 장담하듯 사료업계도 내실 위주의 경영시대를 맞는 금년인 듯하다.

사료업계에 입문하면서 고도의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형태별 전략을 생각해 본 일이 있다.

첫째, 형태는 양축가나 그 조직의 사료회사로서 자거나 단체가 사용해야 할 사료를 자체 생산하는 회사로서 원료 구매나 기술개발을 보통만 유지하여도 살아남을 수 있는 축협이나, S사료 또는 앞으로 출현하게 될 자가배합사료 회사가 될 것이다.

두번째는, 기업 콤비나이트(Combinat) 형태로 식품 가공 부산물을 많이 생산하여 그 부산물 처리의 방편으로 사료업을 영위하거나, 축산물 가공·처리까지 소위 인티그레이션(Integration) 형으로 대기업들이 지향하고 있는 형태들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처럼 첫째 형태도 아니고, 둘째 형태도 아닌 오직 사료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료의 품질, 새로운 기술개발에 전력 투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입장에 있는 형태라고 분류해 보았다.

1983년 5월부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후레이크(Flake) 사료를 출시하여 그 효용에서 인정을 받았고, 다음 해 9월부터 익스투루딩된 갓난돼지·양건사료가 판매되기 시작하여 새로운 사료 가공기술 시대를 열게 되었으며, 금년에는 타 회사에서 양건사료가 출시되어 가공 기술 경쟁시대에 돌입된 것도 같다.

배합사료는 우리나라에 미국회사들이 진출하면서 또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다고 보아도 좋다. 그러나 미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야기 자기한 맛이 없고, 자원 절약형이 아닌 성력형 위주의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유럽이나 일본처럼 자원 절약형, 가축 복지형, 설계·사양을 공부하고 개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료업계의 임무를 사료원료의 선택 및 적정가격 구매기술, 제세금의 면세, 잘못된 정책의 시정, 가공기술의 개발 발전, 자원 절약형 배합설계, 가축 복지형 사양기술의 개발, 이런 문제들로 나열하고 볼 때 금년 실적은 내세울 것이 없고 다가오는 새해에나 새로운 방향타를 잡아 추진해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